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시설관리팀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서의 근무환경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여러 가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안전관리대행기관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도에 따라 관리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안전, 보건업무를 안전 관리자 2인과 보건관리자 1인이 전담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병원안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위험성평가△순회점검지도 △물질안전보건 △교육 △재해발생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과 보건관련 활동은 업무의 한 분야가 아닌 전 직원 모두의 익숙한 기본 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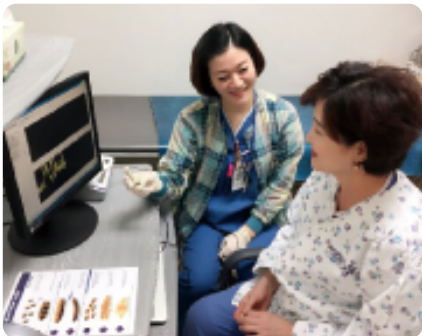
변비 개선을 위한 바이오피드백 치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병검사실에서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법인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피드백 치료란 화면을 통해 환자가 직접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항문 내 근육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용 센서를 삽입하여 잘못된 근육수축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운동을 통해 올바른 이완법을 배우는 치료이다.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이며 증세의 호전에 따라 횟수를 줄여가며 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 치료법의 큰 장점은 약물치료에 비해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다.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약물치료만 시행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약물로 해결이 안 되는 만성 변비가 있는 환자들은 바이오피드백을 통한 적절한 이완법을 통해 매일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알기 쉬운 산정특례

복지부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산정 특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산정 특례 제도란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중증화상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급여항목 중 암 환자는 본인 부담금 95%,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질환자의 경우 90%, 결핵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해주며 진료과의 검사 및 임상결과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자가 결정된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원내 접수, 수납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접수, 수납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해당 주소지 주민생활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진단 확진일로부터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례기간은 1년~5년으로 나누어지며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재등록도 가능하다.

고객의 소리

늘 한결같았던 42병동 간호사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자궁근종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20대에 개복수술을 하려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타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막상 입장이 바뀌어보니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간호까지 42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간호로 제가 무사히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대 근무하며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이 많이 힘드실 텐데 어쩌면 이렇게 다들 한결같으신지 제가 앞으로 직장생활하면서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마지막 퇴원 날까지 소독하며 엄살 부리는 나약한 환자이지만, 건강을 회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42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의 앞날을 기대하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리 미

한방 방문 무료진료 일시 : 1월 18일(수) 14시~16시 | 장소 : 식사1통 경로당